

있는데 1984년부터 최근까지 신촌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에서 시술한 이 하선종양을 조사하여 질병의 종류, 술식등을 분류하여 보았으며 전방접근법을 이용한 7례를 들어 최근의 진단방법 및 술식의 장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 15 -

선낭암에서 병리학적 등급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연세암센터,
아주의대 병리학교실

김기용 · 임호영 · 정현철 · 고은희
김주항 · 노재경 · 김병수 · 이기범

선낭암에서 최근 병리학적 등급이 중요한 예후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1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암센터에 내원하여 선낭암으로 진단받았던 환자 38례를 대상으로 병리학적 등급과 예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전체 대상환자의 중앙연령은 47세(21~66세)였으며, 남녀비는 1:1이었다. 발생부위별로는 부타액선 14례(36.8%), 주타액선 11례(29.0%), 기타 13례(34.2%)였다. 이중 수술 가능했던 경우가 30례(77.6%)였고,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약물치료 2례, 방사선치료 14례, 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용한 경우 8례였으며, 수술 불가능했던 경우가 8례(21.1%)였다. 발견당시 병기 I 7례(18.4%), 병기 II 4례(10.5%), 병기 III 14례(36.8%), 병기 IV 11례(28.9%)였다. 치료후 완전관해가 된 경우는 8례(21.1%)였으며, 국소재발이 고형성분 조성에 따라 분류 조사한 결과, grade I 5례(26.3%), grade II 10례(52.6%), grade III 4례(21.1%)였다. grade I에서는 선낭암으로 사망한 례가 없었으며, 완치된 경우가 40%였고, grade II에서는 사망한 례가 30%, 지속적으로 병을 갖고 있던 례가 40%였으며, grade III에서는 사망한 례가 25%, 지속적으로 병을 갖고

있던 례가 50%였다.

이상의 결과로, 선낭암은 조직병리학적으로 고형성분이 많은 grade II나 III에서 예후가 불량하여 병리학적 등급이 예후 판정의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치적 절제후 방사선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사료된다.

- 16 -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혈청 Interleukin-2 Receptor와 Neopterin 농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서장수 · 박문흠 · 은선진
최재영 · 권영훈

두경부 악성종양의 90~95%를 차지하는 편평상피 세포암 환자에서도 다른 악성종양과 마찬가지로 세포성 면역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경부 편평상피 세포암 환자에서는 암의 초기 단계부터 심한 세포성 면역의 결핍이 나타나며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도 면역결핍이 지속된다는 점이 다른 여타의 악성종양과의 차이점으로 알려져 있다.

두경부 편평상피 세포암 환자에서 말초 혈액중 T-세포수 및 T₄/T₈-세포비의 감소, 지연성 피부 과민반응의 감소, mitogen에 대한 임파구의 증식능 및 lymphokine(interleukin-2(IL-2), interferon) 합성능의 감소, 혈청중 면역 억제인자 및 suppressor 임파구 유발인자의 존재, 순환 면역복합체의 증가, 그리고 대식세포 및 NK-세포 활동도의 감소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최근 암환자에서 체내의 세포성 면역 반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용성 interleukin-2 receptor(IL-2R) 및 neopterin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9년 11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전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두경부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확진된 환자 46예에서 말초혈액 중 T-세포 및 T₄/T₈-세포비와 혈청중 가용성 IL-2